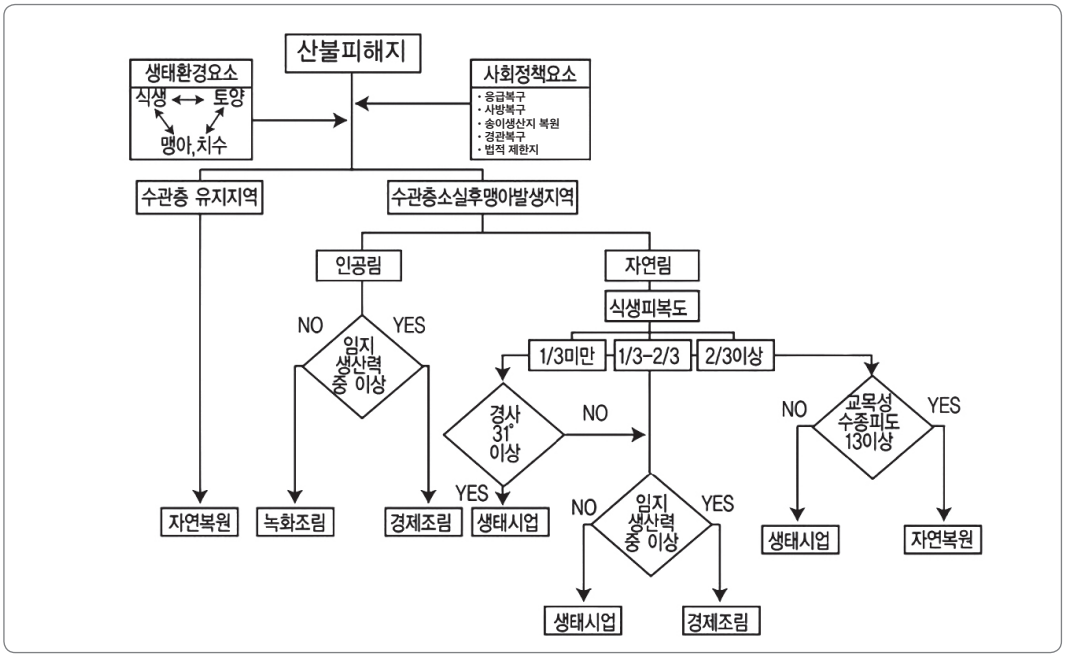


2000년 동해안 산불피해지 복원 의사결정 흐름도

## 06 2022년 울진·삼척 산불 피해지는 어떻게 복원했나요?

**A** 2022년 3월 4일부터 3월 13일까지 10일간 지속된 울진·삼척산불로 울진과 삼척지역 16,302ha 면적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후 산림청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국립산림과학원,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성, 드론 등을 통해 산불피해지 경계와 산불피해 정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산불피해 정도에 따라 복원 대상을 구분하여 복원을 준비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산림청은 「산불피해 복원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이해당사자와 8차례의 보고회와 자문회의를 통해 복원대상, 긴급벌채, 복원방법, 내화수림, 양묘계획, 소득사업, 부산물처리, 산림기능별 복원 등에 대한 합리적인 복원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림복원 49%, 자연복원 51%의 비율로 산불피해를 복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피해지 중 울진 금강송 군락지 주변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4,743ha에 대해서는 생태복원을 적용하여 자연복원을 위주로 복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